



KT-WiBro 서비스



정관영_ 상무

휴대인터넷사업본부
휴대인터넷기획담당

1. 귀사의 WIBRO서비스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휴대인터넷 WiBro는 Wireless와 Broadband의 줄임말로 휴대형 개인 단말기로 초고속인터넷 수준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WiBro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이 제한된 콘텐츠와 이용요금 부담 등으로 문자나 벨소리/캐릭터 내려 받기를 주로 이용했던 것에 비해 좀 더 합리적인 요금으로 다양한 고속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무선인터넷이 기지국(AP, Access Point)이 설치된 핫 스팟(Hot Spot)지역 중심으로 이용하는 반면, WiBro는 인터넷 접속상태에서 이용자가 이동하면서 기지국에서 기지국을 넘어가는 Hand Over가 가능하여 이동하면서도 끊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2005년 1월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후 11월의 APEC 시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서비스를 거쳐 지난 6월말 서울 신촌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분당지역과 강남과 분당을 연결하는 지하철 분당선(선릉~오리)과 연결도로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고객은 WiBro를 통해 무선 IP기반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의 TPS(Triple Play Service)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개인 브로드밴드(Personal Broadband)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2. 귀사의 WIBRO서비스의 장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WiBro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용량 콘텐츠를 양방향으로 이용하면서 개인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ll IP, 양방향 초고속, Open망 등 WiBro의 우수한 기술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양방향 영상, 음악, 게임, 교육 등의 개인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는 현재 기본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뿐만 아니라 WiBro의 장점을 살린 개인 맞춤형 서비스, 멀티미디어 블로그 서비스, 영상회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 복제 및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입자 인증방식인 와이브로용 스마트카드(UICC, Universal Integrated Chip card)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등의 컨버전스형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IP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어 초고속인터넷과의 유무선 연동 서비스, DMB,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현재 상용서비스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서비스 지역확대와 단말종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2010년까지 WIBRO가입자가 9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WIBRO 시장 전망과 이에 따른 귀사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유,무선 음성시장과 유선 데이터시장은 한계에 이른 반면, 무선 데이터 시장은 향후 연 20% 이상의 고속성장기 예상되는 새로

운 Blue Ocean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화, 다양화, 이동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따라 서비스간, 산업간 융합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은 이용요금 부담과 단순 콘텐츠 중심의 제한적 이용에 그쳐 다양한 멀티미디어 사용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ll IP, 양방향 초고속, Open 망 등 우수한 기술을 포함한 휴대인터넷은 현재의 무선인터넷이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내 와이브로 시장은 2011년까지 800만에서 1070 만 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나,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시장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이동전화의 2004~2005년 가입자 규모를 1,200만 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재는 3,600만 명을 상회하게 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와이브로는 외국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활성화된 CDMA 이동전화와 달리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정책결정 및 관련기관간의 논의를 시작하여 국내 표준규격을 확정하고 세계 표준화 노력을 통해 작년 12월 국제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막대한 로열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세계 와이브로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게 되어 IT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CHIP 형태의 단말이 개발되면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와이브로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와이브로의 이동성과 안테나 기술, 다중화 기술 등을 더욱 보완하여 100M 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와이브로 기술이 개발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통신이라고 얘기되는 4세대 통신(4G)의 주요 기술요소가 될 OFDM과 TDD, All IP, MIMO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와이브로가 4세대 통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iBro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이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 인터넷 혁명에 이어 이동성을 통해 개인형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대를 여는 제 2의 인터넷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4. 단말기를 통해 휴대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능을 가진 Chip이 개발돼야 합니까?

WiBro는 노트북과 PDA, Handheld PC, Smart Phone 등 다양한 단말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PCMCIA 카드, 내장형 노트북 등 WiBro 전용 단말에서 시작하여 CDMA, DMB, 무선랜(Wifi)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로 이용할 수 있는 DBDM(Dual Band Dual Mode), TBTM(Triple Band Triple Mode) 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의 단말에 여러 서비스 칩 동시에 사용한 형태의 단말기에서 하나의 작은 CHIP으로 여러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면, IP기반의 개방형 망구조를 가진 WiBro는 다른 산업 및 서비스와 더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말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저전력 고성능 단말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CDMA, DMB, 무선랜 등을 One chip화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